

사회



문달은 '관광 광주' 광주 총장로 일대 중심가 관광을 안내하는 예술의 거리 관광안내소가 20일 예술의 거리 공사로 인해 동부경찰서 옆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문을 닫은 채 방치돼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효과없는’ 복수담임제

학폭 예방 도입... 2학기 들어 폐지 잇따라

학폭예방을 위해 올해 초 도입된 초·중·고교의 복수담임제(1학년 2담임제)가 일선 학교에서 외면받고 있다. 1학기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도입 방침에 따라 복수담임제를 도입했던 학교들이 2학기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올해 2학기 들어 복수담임제를 시행하는 관내 학교는 초·중·고교를 포함해 총 51개교 355개 학급이다. 1학기에는 68개교, 529개 학급이 복수담임제를 시행했지만 2학기에는 이 중 17개교, 174개 학급이 복수담임제를 포기했다. 초등학교는 28개 학급에서 9개 학급으로, 중학교는 47개 학급에서 305개 학급으로 줄었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했던 학급의 3분의 1이 원래 대로 1학년 1담임 체제로 돌아간 것이다. 전남지역은 1학기에 복수담임제를 시도한 학교가 전체 830개교 중 129개교로 고작 15%에 불과해 복수담임제 도입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다. 복수담임제는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올해 1학기를 코앞에 둔 2월에 도입이 결정되면서 준비작업이 일선 학교에서 시행과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담임 A와 담임 B간의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담임 B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많은 교사나 기간제교사 등이 임명돼 결국 담임 A가 모든 업무를 하는 실정이었다. 시·도교육청의 관계자들은 “학폭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for Gwangju) including a map of Korea, temperature table for various regions, and a 7-day forecast for Gwangju.

비엔날레·김치축제 등 국제행사 줄 있는데 광주 관광안내소 운영 엉망

광주시가 광주비엔날레와 세계아리랑축제,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외국·외지에서 관광객들이 광주를 찾고 있으나 지역 내 기본적인 관광안내 인프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광객을 맞는 최일선이라 할 수 있는 관광안내소 수가 적고 정작 외국인과 타지인이 즐겨 찾고 있는 곳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에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광주역관광안내소를 비롯해 모두 5곳. 광주공항, 광천동시외버스터미널, 송정역 등 4곳은 광주시관광협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의 거리는 한국여행협회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비롯해 내국인들이 방문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광주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과 터미널·역의 관광안내소에는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안내소별로 하루 평균 200여명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주말과 광주비엔날레 행사기간에는 400여명 넘게 찾아 정보를 얻어 가고 있다. 인도에서 광주를 찾았다는 크리시나(47)씨 부부는 “해외 여행을 가면서 항상 관광안내소를 찾아 여행지의 정보를 얻는데 광주는 정작 관광지 주변에는 안내소가 없는 것 같다”며 “규모도 작고 자세한 정보도 얻지 못해 불만이었다”고 말했다. 광주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총장로 일대와 관광객들의 속소가 불려있는 상무지구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한국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예술의 거리 관광안내소는 관광객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거리 한 쪽에 위치한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20여명에도 못 미쳤다. 시내 어느 곳에도 이곳 관광안내소의 위치를 안내하는 간판은 없다. 광주에서 원어인 교사를 하고 있는 미국인 블래들리(여·34)씨는 “광주에 온 지 10개월이 됐지만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유학생 가니스(26)씨는 “광주에 1년 살면서 여행을 위해 관광안내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녀온 친구들이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해 가지 않았으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광주 중심가에 있는 ‘컨테이너 관광안내소’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예술의 거리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병휘(59)씨는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면서 컨테이너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관광객의 수요를 감안해 눈에 잘 띄는 곳에 품격있는 관광안내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구청 부지 매각기로 확정

주민공청회·설문조사 결과 67% 찬성

신청사 이전을 추진중인 광주시 남구의 현 청사부지가 전체 매각된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 청사부지 활용 방안 주민공청회’를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 청사부지 전체를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남구 16개동 주민 311명은 현 청사 처리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67.8%가 전체 매각에 찬성했으며, 부분 매각 17.6%, 매각 반대 9.6% 등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청사부지와 보건소 부지, 공용주차장 등 2만2500㎡를 전부 매각하게 된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신청사 입주 이전에 매각 등 모든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각금액은 대체 토지확보와 도서관, 백운동·월산동 일대 공원 확충,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어려운 남구의 재정 여건과 고된 지역 발전을 고려해 전체매각을 결정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전국 콜택시 전화번호 광주~동두천 고속버스 금호, 오늘 신규 개통

내년부터 전국의 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가 하나로 통합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 일번호로 통합하면 이용자는 회사별로 따로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사업자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므로 택시가 기다려야 하는 비용도 줄어든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전통시장 주변 주차하세요

양동·말바우·남광주·무등·서방·송정시장 등 허용.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추석전후 양동시장 등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차 허용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로 대상지역은 말바우·남광주·무등·서방·송정 5일장 등 6개 시장 주변 2.4km 구간이다. 경찰은 해당 구간에서 2열 주차, 허용 구간·시간 외 주차를 엄격히 단속하고 2시간 이상 주차차량은 이동조치하고 경고장도 부착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 광주출입국사무소 센터 운영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일 “지난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75일간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광주사무소는 올 초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 확인 제도 시행으로 신원 불일치자들이 동요하고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진신고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선족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자(강력법,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 후 다시 재입국하게 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잠잘때 머리 밑에 휴대전화 두지마세요’

어린이는 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성장 중인 어린이는 전자파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로 통화할 때는 이어폰 마이크를 사용하고 잠잘 때도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지 말고 몸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는 게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린이·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자파를 줄이는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국내 휴대전화의 전자파는 유해성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전자파 영향을 더 줄일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HAIRMAN advertisement for the 2013 model. It features two car models: the 4WD sedan and the H model. The ad includes detailed specifications, warranty information, and financing options. Key features mentioned include the 4TRONIC All Wheel Drive System, 1-year comprehensive insurance, and a 1-year 50% off lease program.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is provided at the bottom.